

히말라야산 옆 부탄에, 한국연금제도 전수

국민연금공단, 부탄과 교류협력 관한 양해각서 체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이하 공단)은 24일(현지시간) 부탄 팀부에서 부탄 국가연금준비기금(NPPF)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작년 5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10차 아태지역 공적연금 국제연수'에 참여했던 부탄 측의 제의로 이루어졌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를 통해 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훈련·공동연구 등을 추진하여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5일에는 공단이 우리나라 연금제도 전수를 위해 부탄 국가연금준비기금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급여 및 가입확대에 대한 강의와 제도운영 노하우에 대한 연수도 진행한다.

부탄은 현재 전체 인구의 9%만이 연금 가입자로, 가입대상 확대를 위해 연금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부탄 외에도 공적연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를 계획 중인 여러 국가와 제도연수 등의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 운영경험 전수를 위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78회에 걸쳐 1,173명에게 대상국 현지연수와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태국 등 11개국과 양해각서를 체



국민연금공단은 부탄 팀부에서 부탄 국가연금준비기금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결했다.

이를 통해 많은 국가가 국민연금의 사례를 본국 연금제도에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의 노후설계서비스, 필리핀의 독거노인 돌봄서

비스 등이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의 협력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은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 및 수급안정 결의대회를 가졌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수급안정 결의

전북농협, 농협 벼 전북협의회 2025년도 정기총회 개최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24일 농협전북본부에서 농협 벼 전북협의회(회장 백낙진 금마농협조합장) 회원 조합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 및 수급안정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쌀 적정생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적극 협조하며, 쌀 소비문화 개선을 통해 수급안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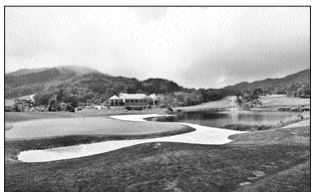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신규 회원 가입 등 승인, 올 전북협의회를 이끌어갈 임원진을 선출하였다.

선출된 임원진은 회장 백낙진 조합장(금마농협), 부회장 송영욱 조합장(이서농협), 감사 한상곤 조합장(태인농협)으로, 지난 2년간의 협의회 운영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아 연임을 하게 되었다.

또한, 정기총회에서 최근 쌀 가격 및 수급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 정부 정책 방향, 쌀 산업 발전을 주제로 여러 의견을 개진하였다.

백낙진 협의회장은 "최근 쌀값 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농업인과 농협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협의회에서 회장이라는 중책을 다시 한 번 맡겨주신 만큼 안정적인 쌀 산업 환경 조성 및 쌀값 회복을 위해 많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

해발 900M 청정 고원에 개장

대한민국 대표 골프장인 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가 지난 23일 겨울 휴장기를 마치고 개장했다.

무주덕유산CC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골프장으로 덕유산의 수려한 풍광 속에서 최상의 라운딩을 즐길 수 있다.

무주덕유산CC는 덕유산 국립공원 해발 950m에 총 18홀의 코스(인코스 파36, 야드 3,251/아웃코스 파36, 야드 3,472)로 골프의 전설 아놀드 파머가 설계했다. 청정고원 골프장의 지형적 특성을 잘 살려 돌과 나무, 물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해 호쾌한 드라이브샷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골퍼들에게 정평이 나 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 관계자는 "2025년 시즌을 맞아 더욱 향상된 서비스와 최상의 코스 컨디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골퍼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무주덕유산CC에서 최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가족호텔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 골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객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환경청,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52억원 지원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친환경적인 하천공간 조성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관내 국가하천인 만경·동진강에 홍수기 대비 및 친수·생태공간 유지관리를 위한 2025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7개 국가하천이 위치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등 7개 시·군과 전북자치도이며, 총 52억원의 국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특히 기획재정부 신

속집행 대상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유지보수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7개 국가하천은 만경강, 소양천, 전주천, 동진강, 정읍천, 고부천, 원평천이다.

주요내용은 홍수와 가뭄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대응 통합시스템 확대운영, 국가하천 정밀안전점검, 적치 폐기물 제거 등 치수에 관한 사항과 함께 국가하천 내 산책로·자

전거길 정비 등 친수시설 유지보수에 사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 10월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현재 환경청에서 관리중인 전주천 상류지역 긴급보수 등을 위한 정비사업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중윤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치수 및 친수시설 유지·보수를 추진하여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만경·동진강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이사 배계섭 처장·기술이사 김성주 본부장 임명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하영)는 25일부로 신임 안전이사에 배계섭(裴季燮) 디지털정보처장, 기술이사에 김성주(金聖主) 대구경북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임 배계섭 안전이사는 1967년생으로 전남 장흥고와 단국대 전산통계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사이버보안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입사한 배 이사는 김해양산지사장, 서울동부지사장, 디지털정보처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김성주 기술이사는 1966년생으로 제주 제일고와 제주대 통신공학과

를 졸업한 뒤 순천향대에서 전기전자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이사는 1995년 입사했으며, 제주본부장, 전기안전교육원장, 대구경북본부장 등을 지냈다.

두 상임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의 전기안전 정책과 산업 발전에 힘쓰고, 전기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관광산업 상생발전 호텔관계자 간담회 개최

전주시는 25일 대우빌딩 7층 회의실에서 지역 내 주요 호텔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지역 내 주요 호텔업계 관계자 10여 명과 전주시 관

련 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숙박관광객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제도 및 주요 추진사업을 홍보했다. 또 호텔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 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 시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산방커 더 스페이스 운영사업 △숙박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아중호수 디지털 야간경관 미디어 콘텐츠 구축사업 △오목대 일일 야간경관 및 실감형 관광콘텐츠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중기중앙회, 사업 설명회 개최

5개 조합, 15개사 맞춤형 ESG 컨설팅·업종별 가이드 지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종별 ESG 선도기업 육성 및 톨킷 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ESG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로, 연료·페인트·중전기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중소기업 ESG 기본교육과 더불어 업종별 톨킷 활용방안 및 우수 사례에 대한 소개로 구성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까지 총 17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 톨킷을 제작하였는데, 올해도 5개 조합을 대상으로 △업종별 ESG 동향 △ESG 중요 애단 △주제별 실천 방안 등이 수록된 '업종별 ESG 톨킷'을 제작하여 중소기업협

동조합의 맞춤형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한다.

또한 선정 조합이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ESG 수준진단, 경영 컨설팅, ESG 교육이 함께 제공되는데, 올해는 업종별 ESG 교육 동영상 제작에 사업 종료 이후에도 중소기업이 스스로 톨킷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양천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앙회 대·중견기업 공급망 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ESG 평가결과를 계약 인센티브·패널티 요건으로 적용하는 대·중견기업이 전년에 비해 두 배 증가했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 도입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